논어 3편 팔일 11장 · 원문·풀이

或問「禘」之說。子曰：「不知也。知其說者之於天下也，其如示諸斯乎？」指其掌。

독음 · 혹문체지설 자왈 부지야 지기설자지어천하야 기여시저사호 지기장

쉬운 풀이(요약) · 체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도 손바닥을 보듯 알 수 있다는 뜻이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或 혹 혹 혹 / 問 물을 문 문 / 禘 큰제사 체 / 之 갈 지

說 기쁠 열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不 아닐 불

知 알 지 / 也 어조사 야 / 其 그 기 / 者 놈 자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天 하늘 천 천 / 下 아래 하 하 / 如 같을 여 여

示 보일 시 시 / 諸 모든 제 제 / 斯 이 사 사 / 乎 어조사 호

指 손가락 지 지 / 掌 손바닥 장 장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